

가정 예배 모범

- 2022_08_21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8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나의 생명 드리니"(찬송가 213장)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레위기 27장 1~ 15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할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사람은 서원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이 서원할 때 일반적인 규례는 정해진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여 정한 값을 지불하지 못할 때는 제사장이 형편에 맞게 정한 값을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2) 가축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다른 가축으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10절)

가축을 제물로 바치기로 서원했다면 서원할 때 정한 가축을 바쳐야지 다른 가축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축으로 바꾸려 했다면 둘 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서원했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시간, 재물, 또 다른 것들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하고서도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 그대로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키시길 바랍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